

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5. 03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목 차

1. 서일본중대형선망 조업 고등어, 1월 어획량 2배 증가 3
2. 냉동 가다랑어 야이즈에서 가격 상승, 사유는 어획 부진 4

- 일본 원양 선망어업협회에 따르면, 서일본 대형 선망의 1월 어획량은 전년 동월 대비 82% 증가한 12,959톤을 기록했으며, 어획액은 36% 증가한 15억 7,939만 엔으로 집계됨.
- 고등어류(참고등어, 망치고등어 포함)는 전년 동월 대비 96% 증가한 12,815톤을 기록했으나, 전갱이류(전갱이, 가라지 등)는 79% 감소해 89톤에 그침.
- 나가사키 지역은 어획량이 44% 증가한 7,267톤, 단가는 24% 하락한 128엔. 후쿠오카 지역은 어획량이 3.5배 증가한 2,444톤, 단가는 39% 하락한 104엔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임.
- 통조림·사료용 소형 고등어가 대량으로 잡힌 반면, 신선 및 가공용 참고등어는 적게 잡혀 평균 단가가 전년 대비 17% 하락해 킬로그램당 120엔으로 집계됨.
- 매월 수백~수천 톤의 전갱이가 잡히는 서일본 지역에서 이번 달에는 100톤 이하로 떨어져 이례적으로 적은 수치를 기록함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¹⁾

¹⁾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50329> ('25년 03월 28일 검색)

□ 지난해 12월부터 남방 어장에서의 어획량이 저조하며, 해상 선망선은 브라인 냉동품*(B급) 생산을 우선시하고 있음.

* 브라인 냉동품이란 식염수 등의 농후한 액체(브라인)에 식품을 담가 급속 냉각시켜 동결시키는 방법으로 제조된 음식

- 특별 선별품 품목의 3월 하순 시점 가격은 전월 대비 2.4~8.7% 상승하며, 4.5kg 이상은 킬로그램당 250엔, 2.5kg 이상은 276엔, 1.8kg 이상은 249엔으로 집계됨.
- B급 품목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, 일부 선망선은 전량 B급 생산에 집중하고 있음. 그러나 어획량 감소로 인해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됨.
- 원양 낚시배 역시 남방 어장에서의 조업이 저조하며, 브라인 냉동 1급품(B1)의 가격은 7kg 이상이 400엔, 4.5kg 이상이 385엔, 2.5kg 이상이 390엔으로 나타남.
- 지난해 가을까지는 양호한 어획량을 기록했으나, 최근 지속된 부진으로 재고가 줄어들며 향후 가격 동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.

※ 출처: 미나토신문²⁾

2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50916> ('25년 03월 28일 검색)